



과학을 보는 새로운 방법,
SCOF 행사 둘러보기

과학이 발전해 온 이야기에 공감대를 형성하라

KAIST ICISTS는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50명의 참가자와 함께 SCOF(Science Communication Festival)을 개최해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최한 ICISTS(International Challengers for the Integr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는 KAIST 학생단체로 대학생들에게 ‘도전하는 가치’를 전파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SCOF 행사는 ‘과학을 보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이공계 및 교육, 디자인 등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ICISTS는 행사 전 3주간 참가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1주만에 선착순 마감될 정도로 대학생들의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예술로 과학을 이해하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란 대중과 과학을 연결해 주는 통로로 이해된다. 나아가 과학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지식 전달 이상의 과학 발전 과정 속에 담긴 과학자들의 수많은 노력, 학문적 도전과 깨달음이 주는 가치, 과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전달을 목표로 한다.

SCOF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예술을 이용하고자 했다. 참가자들은 3일간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중요성을 주제로 연극, 영상, 웹툰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오프닝 공연을 거쳐 SCOF 한 스콧, SCOF 두 스콧, 팀 프로젝트의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축하 영상이 상영됐다. 60여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안필과학, 과학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정모 관장(국립과천과학관), 야광만(야밤의 공대생 만화)으로 어려운 과학을 쉽게 풀어낸 맹기완 교수(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가 참가자들에게 축사를 전했다.

오프닝 공연에서는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출신으로 뇌과학자 겸 미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영조 씨가 출연했다. 송 씨는 2015년 열린 제2회 페임랩 코리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다. 공연은 다양한 마술을 통해 뇌의 주의집중과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 미래 예측 가능 여부 등의 화두를 던지며 뇌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SCOF 한 스콧, 과학자들과의 유쾌한 수다

SCOF 한 스콧은 과학을 연구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자 3인, 김범준 교수(성균관대학교), 황정아 박사(KAIST), 장동선 박사(공금한뇌연구소)가 연사로 나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SCOF 한 스콧은 과학자 3인의 경험을 통해 과학의 가치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로서의 과학을 조명했다.

주요 대화 주제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과학과 사회의 만남’, ‘과학적 소양을 갖춘 21세기 리더’였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서는 연사 각자가 연구하는 분야와 연구 과정을 소개하면서 과학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대중



과 소통하는 이유와 연구자 관점에서 바라본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했다.

‘과학과 사회의 만남’은 세상을 대하는 또 하나의 태도로서의 과학을 이야기 했다. 연사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한 생각, 나아가 사회와 연결된 과학을 이야기했다. 과학의 특성인 보편성, 통시성, 인간성의 3가지 키워드의 의미를 돌아보고 과학의 학문적 특성과 과학자들의 삶이 사회와 연결되는 것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과학적 소양을 갖춘 21세기 리더’ 주제에서는 참가자인 대학생들이 21세기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뤘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SCOF 두 스콧, 실전에서의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란?

SCOF 두 스콧은 대중과 소통 현장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연사들이 나서 실전에서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소개했다. 구독자 43만명의 유튜버 ‘과학쿠키’ 이효종 씨, 구독자 16만명의 유튜버 ‘지식인 미나니’ 이민한 씨, 중력의 과학사를 그린 교양만화 ‘그래비티 익스프레스’로 유명한 조진환 작가가 출연했다. 연사들은 실제로 경험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들려주며 참가자들의 동기부여를 북돋았다.

첫 번째 대화 주제는 연사 각자의 소개였다. 모두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각자 다양한 경험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여전히 과학과 대중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사들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과학과 대중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여 그 둘의 간극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주제로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사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연사들은 효과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대중과 과학 사이에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적절하게 자리를 잡고 흥미와 정확성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흥미가 과하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정확성만 추구하면 재미가 없다. 연사들은 각자 지향하는 흥미와 정확성 사이의 균형, 현재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 번째 대화 주제는 연사들의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과

보람이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극복한 경험, 과학을 전달하는 수단,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팀프로젝트, 영상·웹툰·연극으로 과학과 대중을 잇다

앞선 두가지 토크 콘서트 세션에서 충분히 동기부여된 참가자들은 팀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영상, 웹툰, 연극을 직접 제작했다.

영상 세션에서는 과학쿠키와 지식인미나니의 멘토링으로 제작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제작 과정에서 협업과 창의성,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에 집중하고,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나갔다. 주제는 과학사의 사건, 흥미로운 과학 원리, 뜨거운 사회 이슈 중 자유롭게 선택해 제작을 진행했다. 최종 영상은 발표를 통해 평가를 받았고, 우수작은 크리에이터상, 스토리작가상, 과학커뮤니케이터상 등을 수상했다. 제작된 영상물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협조를 통해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에 게시될 계획이다.

웹툰 세션에서는 ‘방구석 SF 오디션’을 그린 러조이 작가가 멘토로 참여했다. 러조이 작가는 ‘작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웹툰 작업을 하는가?’를 주제로 웹툰 제작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멘토의 지도를 통해 소주제를 선정하고 기획 및 콘티 방향 설정, 스토리 구상, 웹툰의 메인 캐릭터 설정, 콘티 제작 등을 진행했다. 제작 웹툰들은 향후 더 수정보완하고 전문가의 검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웹진에 실릴 예정이다.

연극 세션은 극단 ‘외계공작소’의 강신철 기획자, 과학연극 ‘지니 어스’의 안우주 배우, 과학연극 ‘양자전쟁’의 주범 배우가 멘토로 나섰다. 참가자들은 행사 전에 각본 초안을 완성해 멘토의 피드백을 받았다. 행사에서는 멘토의 지도 아래 대본 리딩을 진행했다. 최종 완성된 연극은 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해 최종 발표했으며, 창의상, 연출상, 각본상 등을 수상했다. 완성된 연극은 보람을 통해 교육 소외 지역에 교육 봉사 프로젝트 형태로 활용할 예정이다.

SCOF를 통해 대학생들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갖고, 많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등장해 다양한 콘텐츠로 과학과 대중을 연결해 과학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KAISTian